

모 두 발 언

2021. 1. 1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 여러분,
이시연 박사님, 김준석 박사님,
금감원 부원장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부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준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공시제도 개선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개인투자자 증가를 감안하여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공시제도 개선방향

오늘 논의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① 첫째,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現)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따라 메뉴 구성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 (改) 조회수 많은 항목 중심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개편

② 둘째,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 * ①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이 없이 연간기준인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
- ② 제출기한(45일)이 사업보고서의 절반으로 기업의 작성부담이 큼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할 계획입니다.

- * (現) 자산규모 1천억 미만 → (改)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19년말 기준: (현행 기준) 1,149사(41.6%) → (개선 기준) 1,395사(50.5%)

③ 셋째, ESG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 * 환경 관련 기회·위기로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기업들의 준비상태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25년)자율공시 활성화 → (25~30년)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 (30년~)쉐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

④ 마지막으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 * ① 기술특례상장사가 조달한 자금의 투자내역을 상세하게 공개
- ②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의 지급능력, 외환거래 관련 리스크 공시 강화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시 제재 강화 등
- ** 소액공모서류 미제출 과태료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간 형평 제고 등

3. 마무리 말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Publicity is justly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s.”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됨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 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우리 증시는 최근 KOSPI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의무임을 명심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업계, 감독기관,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